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전주시보건소, 지원 대상 질환 기준 1189개→1272개 확대·환자·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도 완화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189개에서 올해 1272개로 확대됐다. 또, 특수시 지원 대상 질환이 28개에서 37개로 증가했으며, 당원병 환자에게 옥수수 전분

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또한 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재산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재산기준이 항목별로 1억 원~2억 5000만원 가량 상향 조정되는 등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로, 환자 및 부양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정기재조사에서 소득재산기준으로 부적합 판정 받은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의료비를 소급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희귀질환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매년 2회 정기 재조사와 수시재조

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 사업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ing.kdca.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637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미래 산업도시 도약

전주시 경제산업 2030+ 미래비전 포럼 열려

전주시가 강한경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시형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데이터 기술 인력 등 인재 중심의 성장과 혁신지구 육성을 통한 도심의 혁신공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전주혁신창업허브 1층 첨단누리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연구기관 관계자와 신성장산업 발전위원, 경제단체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주시 경제산업 2030+ 미래비

전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8기 전주시가 발표한 '전주시 경제산업 2030+'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주가 강한 경제 도시이자 미래 산업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 '산업 대전환기 지역 산업 육성전략: 전주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대전환기 지역 경제 및 산업의 현황

△대전환기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와 산업혁신 공간의 특징 △전주시 산업 현황과 정부의 산업육성 관련 정책 등 글로벌 산업 트렌드와 미래 산업의 전망을 분석했다.

특히 김 선임연구위원은 △도시형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인재 중심의 성장 △도심 혁신공간화, 혁신지구 육성 등 전주시 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전략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범준 캠퍼스융합기술원 팀장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정부정책 및 지역산업 현황에 따른 신성장산업 개설편(안)'을 주제로 지역산업을 진단하고 전주시 신성장산업 개선 방향을 제

시했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는 이덕진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병익 전주시의원과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위원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5명이 패널로 참여하는 패널토의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패널들은 미래 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주시 경제구조의 강점 및 약점 진단을 통해 신성장산업 발굴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포럼이 미래산업 도시 전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출된 방안들을 토대로 미래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하버드 래드클리프 오케스트라단은 전주 공연의 수익금 전액(820만원)을 최근 전주시에 전달했다.

내한공연 수익금 전액 기탁

하버드 래드클리프 오케스트라, 전주시에 820만원 전달

미국 하버드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하버드 래드클리프 오케스트라(이하 HRO)가 전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HRO는 지난 14일 시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공동 기획으로 열린 '하버드 래드클리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의 수익금 820만 원을 최근 시에 전달했다.

HRO는 공연 수익금 정산 후 전주 공연의 수익금 전액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부자에 요청에 따라 전주복지재단에 전달돼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HRO의 기부금은 전주복지재단

이 장애인 및 환우 등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인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나눔의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얼굴 없는 천사의 도시이기도 한 우리 전주시도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RO는 지난날 14일과 15일 이틀간 전주를 찾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주 내한공연을 선보였으며, 전주한옥마을과 태권도, 조선팔, 한식 등의 전주의 문화를 체험한 바 있다.

/김옥기 기자

영농철 친환경농가 찾아 일손돕기 '구슬땀'

전주농기센터·전주푸드 직원들, 토마토·고추 농가 찾아

전주시가 영농철을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가를 찾아 일손을 거들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성)는 지난 23일 완산구 금상동 소재 친환경 하우스 농가를 찾아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농번기 인력난으로 힘겨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일손돕기를 추진했다.

농업기술센터와 전주푸드 직원 등 20여 명이 이날 토마토와 고추재배 하우스에서 토마토 수확·선별, 고추 순 따기 작업, 잡초 제거 등 바쁜 농가의 일손을 거들었다.

이러한 전주지역 친환경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주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전주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공급돼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급식



과 시민들을 위한 안심먹거리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 시는 △친환경농업 기계화 지원 △병해충 방제 농약 공동살포 등 국가의 기반인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영농인력 절감,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역량강화 위한 사진 심리치료 기법 지도자 연수 실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4일 전주YWCA 민들레홀에서 관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 52명을 대상으로 '사진 심리치료 기법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지역 내 청소년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각급 학교 등 아동·청소년 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여 상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연수는 유이나 대표(사진심리연구소 루모스)를 강사로 초빙해, 사진을 이용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돕는 미술치료 기법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직접 적용 가능하도록 상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자 연수로 진행됐다.

한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는 "사진



이라는 매체가 본인도 잘 모르고 어려운 마음의 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나 자신도 감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센터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담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됐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자들의 소진도 예방하는 힐링의 시간이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청소년 보호 캠페인·유해환경 점검

청소년 유관기관 7개 기관과 민·관 합동 전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지난 23일 한들초등학교 및 중화산동 일대에서 청소년 유관기관 7개 기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비롯해 전주완산경찰서 학교전담팀,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주시 내 여러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각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는 캠페인이 끝난 후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효자동 일대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 방문해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

커 미부착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표지 부착 의무 위반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와 스티커 배부·부착 등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계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 유해행위 방지를 위해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홍보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학교 주변 민·관 합동 청소년보호 캠페인과 유해환경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제61회 법의 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시

고민을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으십니까?

나의 변호사(www.klaw.or.kr)를 클릭해주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으로 공신력 있는 변호사 정보와 업무사례 등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사건 의뢰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나의 변호사 서비스 검색을 통하여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법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준비한 서비스입니다.

제 1 부 회 장 이 연 주

- 총무상임이사 홍 민 호
- 재무상임이사 이 삼 일
- 공보상임이사 이 회 열
- 인권상임이사 노 혜 성
- 교육상임이사 김 대 호
- 법제상임이사 홍 의 진
- 여성상임이사 김 진 미
- 군산상임이사 조 영 보
- 정읍상임이사 유 택
- 익산상임이사 최 환 석

제 2 부 회 장 최 경 섭

- 이 사 강 성 명
- 이 사 국 윤 호
- 이 사 강 영 신
- 이 사 추 길 환
- 이 사 김 석 곤
- 이 사 김 태 훈
- 이 사 유 주 환
- 이 사 광 영 수
- 이 사 이 보 향
- 이 사 김 재 희
- 이 사 신 흥 집
- 이 사 이 영 진
- 이 사 정 재 원
- 이 사 임 현 주
- 이 사 최 혜 옥

- 이 사 김 용 빈
- 이 사 김 진
- 이 사 강 신 무
- 이 사 최 규 민
- 이 사 민 아 람
- 이 사 임 채 훈
- 이 사 최 경 환
- 이 사 정 영 일
- 이 사 황 희 상
- 이 사 이 영 주
- 이 사 하 현 환
- 이 사 홍 호 성



회장 김학수